

일본 제조업의 자국내 유턴과 시사점*

* 이 자료는 일본종합연구소가 발표한 「제조업의 국내회귀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」(2017년 2월26일)을 요약번역, 정리하고 시사점을 덧붙인 것임

- 그동안 일본 제조업의 공동화를 유발했던 소위 6중고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, 일본기업의 국내유턴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음
- 국내유턴의 배경으로는 ①엔저에 의한 수출경쟁력 개선, ②인바운드 수요를 배경으로 한 일본 소비시장규모 확대, ③자동화와 기술·연구개발의 강화 등임
- 국내유턴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①수입감소, ②수출증가, ③설비투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
-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국내유턴이 부진하여 지난 2013년 ‘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’을 시행하여 국내유턴을 지원하고 있음
- 그러나 그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를 전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실행한 생산능력 증강투자도 포함시키는 한편, 지속적인 국내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인구감소 억제 등 장기적인 국내수요확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

1. 일본 제조업의 자국내 유턴 배경

- 2012년말 아베노믹스가 시동한 이후 2017년 말까지 5년이 경과함
- 그동안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
 - 2015년 5월에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그동안 일본의 사업환경을 어렵게 했던 소위 6중고*에 관하여 그 일부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함
- * ①엔고, ②과도한 법인세·사회보험료 부담, ③부진한 FTA 추진, ④유연성을 결여한 노동시장, ⑤불합리한 환경규제, ⑥전력공급 부족·고비용구조
-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제조업에서 생산설비의 국내이전이나 국내에서의 신규투자라고 하는 국내유턴 움직임도 확대됨
- 각종 사례에서 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내유턴의 특징으로서 크게 3가지 패턴을 들 수 있음

□ 엔저에 의한 수출경쟁력 개선

- 이 배경에는 신흥국의 추세적인 임금상승이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의한 엔저로, 생산비용 격차가 시정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
-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을 국제비교하면 일본은 2012년까지 독일과 함께 주요국 중 최고수준에 있었으나 아베노믹스가 시동된 이후에는 30%정도 하락함
-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과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잔존하고 있으나, 일본 노동자의 높은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질을 포함한 인건비로 본 생산성격차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

□ 인바운드* 수요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소비시장규모 확대

* 인바운드(inbound)수요는 해외에서 방일하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일컬음

- 이와 관련하여 방일 외국인수는 증가하고 있어 2017년에는 2,869만명으로 2012년 대비 3.4배에 달함
- 이 영향으로 국내소비 전체에서 점하는 방일 외국인소비지출의 기여도 2014년 이후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국내소비 전체 증가율의 1/4을 점하고 있음
- 외국인 여행자들의 구입품목 중 화장품이나 식료품, 일용품 등은 토산물로서의 구입 빈도가 높고, Made in Japan이라는 것 자체가 그 높은 품질을 보증하고 있음
- 이 점이 외국인여행자들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어 일본제품의 시장확대로 연결되고 있음

□ 자동화와 기술·연구개발의 강화

- 일본 제조업에서는 자동화기술의 진전에 따라 조립 등 생산라인에서 일손을 요하지 않는 생산체제가 보급되고 있음
- 최근 일반기계나 민생용전기, 의약품·화장품을 포함한 화학공업, 자동차 관련 등에서 자동화를 위한 로봇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
- 이와 같은 자동화기술을 최첨단공장에 도입함으로써 일손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도 다양한 품목을 라인업하면서도 가격경쟁에 견딜 수 있는 양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됨
- 또한 일본의 제조업 관련 기업이 기술·연구개발을 적극화하고 있는 점도 국내 유테의 한 요인임

- 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, 제조업 관련 기업의 대다수는 국내 주요 거점을 모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- 모공장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, 연구개발거점과의 제휴나 신제품개발기능, 새로운 생산방법의 개발·구체화, 국내외 타공장에 대한 기술의 이전·전사를 위한 모체로서의 기능 등을 가진 공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
- 다른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확대하는 기능으로서 신제품의 연구개발을 열거하는 기업들도 많음
- 또한 최근에는 AI, IoT 등의 신기술의 진보가 두드러져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들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체제 구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
- 일본의 제조업 관련 기업은 신제품의 연구개발이나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체제의 개발 기능을 가진 모공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

2.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자국내 유통의 움직임은 일본의 GD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플러스영향을 미침

□ 수입감소

- 본래 일본 기업이 해외공장에서 생산, 역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던 제품을 일본내 공장에서의 생산으로 대체하게 되면, GDP에 대하여 플러스가 됨
- 따라서 일정한 전제조건하에 국내시장에 대한 총공급(국내생산-수출+ 수입)에서 점하는 역수입의 비율을 시산하면, 기존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에 따라 2012년경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나, 아베노믹스의 시동후에는 이같은 경향에 제동이 걸림

□ 수출의 증가

- 종래 일본의 제조업 관련 기업이 해외공장에서 생산,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던 제품에 관해서는 일본의 GDP에는 부가가치의 일부가 분배된 특허권사용료 등밖에 계상되지 않음
- 이것이 국내생산으로 대체되어 수출되게 되면 모든 부가가치가 수출에 계상되는 결과, GDP를 높임. 다만 원재료·부품 등의 수입도 마이너스로 계상됨

- 일본제품에 대한 해외수요(수출+ 대일수출을 제외한 해외현지법인 생산)에 점하는 수출비율을 보면 많은 제품에서 아베노믹스 시동후에 바닥을 치고 있음
 - 특히 2016년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뚜렷해진 가운데, 수요확대에 해외 생산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을 현지생산능력의 증강이 아닌 국내공장으로부터의 수출로 대응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
- 또한 인바운드 관련 상품에서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
 - 그 배경에는 전술한바와 같이 Made in Japan의 품질에 만족했던 방일외국인이 귀국 후에도 EC거래 등으로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반복(리피터)수요가 확대되고 있음

□ 설비투자의 증가

- 전술한 수출증가에 유발된 생산능력증강투자 외에 인바운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도 보여짐
 - 인바운드 관련 업종에서는 매출액의 증가를 배경으로 설비투자의 증가가 현저해지고 있음

3. 국내유통의 제약요인

- 이와같이 제조업의 국내유통은 일본경제에 플러스영향을 미치고 있음
 - 물론 앞으로 자국내 유통의 움직임이 큰 조류가 되어 일본의 성장력을 높일 정도의 견인력을 가질 공산은 적음
- 경영자가 생산거점의 입지선정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최종수요의 규모와 성장성, 및 기타 소재장소이며, 인건비나 환율변동, 무역환경 등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인임
- 따라서 인구감소에 의해 국내소비시장이 축소되는 한, 앞으로 국내 유통이 한층 진전할 가능성은 적음
 - 최근 인바운드 수요의 확대도 국내소비를 증가시키기는 하나 그 규모 자체가 국내 소비의 1%정도를 점하는데 불과하여 크다고 할 수 없음
 - 실제 GDP기준상품의 수출입비율과 해외현지생산비율의 추이를 보면, 최근에는 국내 유통에 따라 현지생산비율·수입비율의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있으나, 리먼쇼크 이후 엔고국면에서의 상승분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임

- 또한 수출비율을 보더라도 리먼쇼크이전부터의 정점을 벗어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
-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가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국내유턴을 직접적인 목표로 실시한 보조금이나 감세 등의 정책효과는 한정적이며, 인구가 증가하는 아시아·미국으로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음
- 오히려 요구되는 것은 국내수요를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발본적인 시책임
- 국내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성장기대의 격차가 축소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투자·국내생산에 적극화할 것으로 기대됨

4.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수요 확대책

□ 인구감소 억제


- 이것은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어, 국내시장의 축소우려를 경감하는 것임
- 노동방식개혁이나 보육소의 양적·질적 충족을 추진함으로써 현역세대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- 기업의 신규 사업소입지계획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, 국내사업환경의 불안 요인으로서 국내시장의 축소를 첫번째로 들고 있음
- 두 번째 불안요소도 일손부족을 들고 있어 인구감소는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공급면에서 보더라도 기업의 성장기대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.

□ 기업의 수익력 강화

- 구체적으로는 고부가가치제품의 창출(프로덕트 이노베이션)이나 효율화에 의한 비용절감(프로세스 이노베이션)이 요구됨
-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인력의 육성 등 인적투자의 지원이 핵심임
-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도 수익력 강화에 기여함. 해외시장과 대비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나 제품을 개량해야할 점을 발굴할 수 있음

- 해외시장에서의 경험은 일본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의 발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내생산,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형태로 환원됨
- 이상과 같은 환경정비가 진행되어 국내경제에 대한 성장기대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설비투자나 고용자에 대한 분배증가를 통하여,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경제 전체에 균점시킬 수 있게 되어 지속적인 국내경제 확대의 기점이 될 수 있음

5. 시사점

- 일본기업의 자국내유턴은 일본인투자를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국내생산 및 고용 감소, 대일수출감소 등 악영향을 미침
- 한편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국내유턴이 부진하여 지난 2013년 ‘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’을 제정하고 유턴 정책을 시행해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오고 있음
-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턴 지원법은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동일한 업종의 국내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로 유턴 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비하여, 일본의 국내유턴은 ①해외공장의 폐쇄, 국내생산에 집약, ②글로벌화를 전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실행한 생산능력 증강투자, ③해외생산비율의 저하와 국내생산비율의 상승을 포함하고 있음
- 이에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뿐만 아니라 ②, ③도 고려한 글로벌 지원정책이 필요함
- 더욱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내수시장규모가 적은 만큼, 그만큼 더 국내수요 확대책에 의존해야 하는 바,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국내투자환경 개선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억제, 기업의 수익력 강화가 필요함. 

<참고자료>

일본종합연구소 「제조업의 국내회귀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」(2017.2.26)
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esearchfocus/pdf/10327.pdf>